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6. 3. 17.
- 제공자 : 축산국 가축방역과
- 과 장 : 김 창 섭
- 사무관 : 장 기 윤
- 전 화 : 500-1936, 1937

이 자료는 2006년 3월 17일 11: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,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 확인후 시행

- 농림부는 금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미국측이 추정한대로 10세이상 이라면 당초 한·미 양국간 합의한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.
- 지난 1월 협상과정에서 한·미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물성 단백질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된 '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
- 이를 바탕으로 한·미 양국은 늙은 소의 BSE 추가발생 가능성을 이미 예견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바탕 위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음.
- 그러나, 농림부는 당초 3.19일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미국 당국이 지난 3.14일 BSE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한 해당 소의 나이가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.

□ 농림부는 미국 당국이 금번 BSE 발생 소가 '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되면 「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」에 따라 작업장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미국측이 승인을 신청한 수출 작업장중 일부만 현지 점검하려던 당초계획을 바꿔 수출 작업장(33개소) 모두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현지점검은 경험이 풍부한 우리 검역관들이 상세한 점검표를 갖고 미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할 것이며, 최소한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